

▶ 내신 기출 문학 비상-하편 ◀

3. 한국 문학의 성격

(3) 춘향전 (16문제)-----1쪽

4. 한국 문학의 역사

(1)

*주몽 신화 (17문제)-----15쪽

*제망매가 (25문제)-----25쪽

*동동 (38문제)-----40쪽

(2)

*이생규장전 (36문제)-----62쪽

*시조 네 편 (46문제)-----85쪽

*속미인곡 (55문제)-----105쪽

*임경업전 (38문제)-----130쪽

(3)

*산돼지 (21문제)-----156쪽

*쉽게 씌어진 시 (60문제)-----173쪽

*태평천하 (37문제)-----198쪽

(4)

*광장 (21문제)-----220쪽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20문제)-----235쪽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6문제)-----245쪽

5. 문학에 관한 태도

*흐르는 북 (22문제)-----250쪽

◆빠른 전체 정답-----266쪽

◆해설-----270쪽

교재 버전: 2021.02.09

“주몽 신화” 분석 정리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건국 신화 | 성격 | 서사적, 영웅적 |
| 제지 | '주몽'의 고구려 건국 | | |
| 주제 |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의 내력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생 설화 중에서 유일한 인생란(人生卵) 설화에 해당함. • 여러 신화적 화소(천손 강림, 난생, 기아, 태양 숭배 등)를 복합적으로 지님. • '천제-해모수-주몽'의 삼대기 구조를 보여 줌. | | |

◆전체 구성

| | |
|----------------|--|
| 고귀한 혈통 |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의 아들임. |
| 비정상적 출생 | '유화'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남. |
| 버려진 아이 |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게 여겨 내다 버림. |
| 비범한 능력 | '주몽'은 기골이 준수하고 활을 매우 잘 쏴. |
| 성장 후 시련 | '주몽'은 그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위험에 처함. |
| 시련 극복 | '주몽'이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김. |
| 위업 성취 |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성을 '고(高)'로 삼음. |

1. 인물 간의 관계

| | | | |
|-------------|---|--------------|--|
| '주몽' | → | 대립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주몽')을 버리게 한 '금와왕' • '주몽'을 죽이고자 한 '대소'와 나머지 왕자들 |
| | | 조력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주몽')을 보호한 여러 짐승들 • 함께 부여를 떠나는 '오이' 등 세 사람의 벗 • '주몽'에게 다리를 만들어 준 물고기와 자라 |

2. 신화적 상징성

| | |
|-------------|---|
| '햇빛' | 햇빛이 '유화'를 비추고, 이로 인해 '유화'가 잉태하여 '알'을 낳음. →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
| '알' | '주몽'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옴. →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함. |

◆감상의 정리

「주몽 신화」는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의 출생 및 성장 과정에서부터 부여를 탈출해서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국 신화이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 중에서 난생(卵生)이라는 기이한 탄생 화소(話素: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와 더불어 천손 강림(天孫降臨), 기아(棄兒), 태양 숭배 등 고대 서사 문학의 다양한 화소가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대인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신화적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주몽의 생애를 통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후대 서사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의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

영웅 일대기 구조는 영웅적 인물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서사 구조를 말한다. 영웅 일대기의 주요 서사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으로, 비정상적으로 출생한다. 둘째,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다. 셋째, 주인공은 일찍 가족과 헤어지거나 버려지는 등의 고난에 부딪힌다. 넷째, 고난에 부딪힌 주인공은 구출자 또는 양육자를 만난다. 다섯째, 주인공은 다시 위기를 맞는다. 여섯째, 주인공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다. 이러한 영웅 일대기 구조는 한국 문학에서 영웅 서사 문학의 기본 구조가 되었고, 신화, 영웅 서사시, 영웅 소설, 신소설 등에서 두루 나타내게 되었다. 영웅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주몽 신화」 이외에도 「홍길동전」, 「유충렬전」 등이 있다.

“주몽 신화”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사건의 흐름에 따라 ‘주몽’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
|---------|--|
| 고귀한 혈통 |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의 아들임. |
| 비정상적 출생 | ‘유화’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남. |
| 버려진 아이 |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게 여겨 내다 버림. |
| 비범한 능력 | ‘주몽’은 기골이 준수하고 활을 매우 잘 쏴. |
| 성장 후 시련 | ‘주몽’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험에 처함. |
| 시련 극복 | ‘주몽’이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김. |
| 위업 성취 |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성을 ‘고(高)’로 삼음. |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이 고구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말해 보자.

건국 신화란 나라의 기원, 시조(始祖), 건국 등을 신성화한 이야기를 말한다. 신성화한다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그의 행위가 신적인 위상으로까지 떠받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국 신화는 특정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면서도, 그 인물의 건국 행위를 신성화하고 그를 신격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고구려 백성들에게 「주몽 신화」가 지녔을 의미: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 주었을 것이고, 신성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3 작품을 읽고, 작품에 나타난 신화 속 주인공의 특성을 「주몽 신화」와 비교해 보자.

[앞부분 줄거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桓雄)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忌)한 지 이십일 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壇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일렀다.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오십 년인 경인년-요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이니, 오십 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에 평양성-지금의 서경(西京)-에 도움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불렀다.

또다시 도움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에 옮겼다. 그곳을 궁홀산(弓忽山)-혹은 궁이 방(方) 자로도 되어 있다.-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 한다. 그는 일천오백 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封)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일천구백여덟 살이었다고 한다.

- 작자 미상, 「단군 신화(檀君神話)」

(1) ‘단군’과 ‘주몽’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신화 속 주인공의 특성을 말해 보자.

건국 신화 속 주인공들은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신이한 능력을 지녔으며, 위업을 이룬다는 특성을 지닌다. ‘단군’은 ‘천제’의 손자로 천상적인 존재인 ‘환웅’과 지상적 존재인 ‘웅녀’의 결합으로 태어났으며, 고조선을 건국하여 일천오백 년 동안이나 다스린다. ‘주몽’ 또한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으며 활을 잘 쏘았다. 훗날 고구려 건국이라는 위업을 달성한다.

(2) (1)에서 정리한 주인공의 특성이 나타나는 한국 문학 작품을 더 찾아보자.

· 작자 미상, 「유충렬전」: 천상계의 신선이던 ‘유충렬’이 죄를 지어 지상으로 하강하게 되며, 고위 관리 ‘유심’의 외아들로 태어난다. ‘유충렬’은 간신 ‘정한담’의 박해로 죽을 고비에 처하지만, 부친의 친구 ‘강희주’를 만나 그의 사위가 되고 도술에게 도술을 배운다. ‘정한담’의 반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유충렬’이 ‘천자’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는다. 이로써 ‘유충렬’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주(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여러 아들과 노닐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꺾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 라고 하였다.

금와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쳤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닭 되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또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 주었다. 이에 왕이 알을 쪼개 보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일곱 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는데, 백 번 쓰면 백 번 다 적중하였다.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쓰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朱蒙)이라 이름하였다.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에 장자인 대소(帶素)가 왕께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을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 하였다.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淹水)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흠뻑 젖었다. 이로써 뒤쫓아 오던 기마병은 건너지를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현도군의 지경)에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러나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류수(沸流水)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다. 이때의 나이가 12세였는데, 한 나라 효원제(孝元帝) 건소(建昭) 2년 갑신(甲申)에 즉위하여

왕이라 일컬었다.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5백 8호나 되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달천고등학교 (울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비상식적인 일화를 통해 건국 시조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내용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분명한 선악의 대립과 악인의 몰락을 통해 주제를 부각한다.

㉣. 대화를 통해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역순행적인 구성을 통해 주인공의 비범성을 보여주고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달천고등학교 (울산)

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몽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주몽’이 지닌 고귀한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대소’는 ‘주몽’의 신이한 탄생을 이유로 내세워 ‘주몽’을 처치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유화’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햇빛으로 인해 ‘주몽’을 잉태하게 된다.
- ④ ‘금와’는 ‘대소’의 제안을 거절하고 ‘주몽’을 시험하고자 과제를 준다.
- ⑤ ‘오이’ 등 주몽의 세 벗은 ‘주몽’의 시련과 극복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3. **<보기>는 주몽신화의 서사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주몽신화」는 ‘(㉠)’라 불리는 서사 구조를 보여 준다. ‘고귀한 혈통’ → ‘비정상적 출생’ → ‘㉡기아(棄兒)의 과정을 겪지만 구출됨’ → ‘탁월한 능력’ → ‘자라서 다시 위기 봉착’ → ‘위기 극복’ → ‘위업 성취’라는 이 서사구조는 고난이나 위기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인물이 지닌 위기 극복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1) ㉠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 (2) ㉡에 해당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조건 : 기아와 구출을 하는 행위 주체를 반드시 밝힐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조 동명 성제의 성은 고씨(高氏)이며,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와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노닐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꺾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금와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쳤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닳 되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또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 주었다. 이에 왕이 알을 쪼개 보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일곱 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는데, 백 번 쓰면 백 번 다 적중하였다.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朱蒙)이라 이름하였다.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에 장자인 대소(帶素)가 왕께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시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을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하였다.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淹水)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해 가는

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흠어졌다. 이로써 뒤쫓아 오던 기마병은 건너지를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에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국호는 고구려라고 정하였다.

- 일연, '삼국유사' 중에서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4. 밑줄과 다음의 <보기>에 보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공통된 요소로 적절한 것은?

<보기>

[앞부분 줄거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桓雄)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쉼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忌)한 지 이십일 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壇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일렀다.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오십 년인 경인년-요임금의 즉위 왕년은 무진이니, 오십 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에 평양성 -지금의 서경(西京)-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불렀다.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에 옮겼다. 그곳을 궁홀산(弓忽山)-혹은 궁이 방(方) 자로도 되어 있다. - 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 한다. 그는 일천오백 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封)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일천구백여덟 살이었다고 한다.

- 일연, '삼국유사' 중에서

- ①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으로,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 ② 주인공은 일찍 가족과 헤어지거나 버려지는 등의 고난에 부딪힌다.
- ③ 고난에 부딪힌 주인공은 구출자 또는 양육자를 만난다.
- ④ 주인공은 다시 위기를 맞는다.
- ⑤ 주인공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윗글과 같은 갈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성격상 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등장한다.
- ③ 이야기에 포괄적인 증거물(천지, 성씨 등)이 나타난다.
- ④ 이야기의 전승 범위는 세계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범하지만 난관에 부딪혀 좌절한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천손강림(天孫降臨)의 화소가 엮인다.
- ② ㉡ : 태양숭배(太陽崇拜) 사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 ③ ㉢ : 난생(卵生)이라는 기이한 탄생 화소가 있다.
- ④ ㉣ : 기아(棄兒)의 화소가 들어 있다.
- ⑤ ㉣ : 삼대기(三代記) 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화소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7.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족적 단위로 전승되며 그들에게 진실되고 신성하다고 여겨진다.
- ② 아득한 태초나 신성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신적인 존재의 활약상을 그린다.
- ③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물을 통해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한다.
- ④ 주인공의 뛰어난 혈통을 기반으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 ⑤ 비범한 존재의 뛰어난 활약에 따라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면서 마무리된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8. 윗글과 <보기>의 단군신화와 공통적 요소를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앞부분 줄거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桓雄)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쉼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忌)한 지 이십일 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壇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일렀다.

- 작자 미상, '단군신화(檀君神話)'

- ① 난생(卵生) 화소가 포함된 건국 신화이다.
- ② 주인공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다.
- ③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이 나타나 있다.
- ④ 주인공들은 고귀한 혈통을 나타낸 신성한 존재이다.
- ⑤ 주인공들은 성장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



“제망매가” 문역 정리

생사(生死) 길흔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 이승, 현재 공간, 이별의 공간
 나는 가느다 말스도
 화자의 누이
 몸다 니르고 가느긋고.

어느 그술 이른 브락매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암시함.
 이에 더애 브러덜 낄근.

흐든 가지라 나고
 한 부모, 같은 핏줄
 가논 곧 모드론더.

아야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감탄사 누이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함.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
 의지적 태도
 : 저승(극락세계), 미래 공간, 재회의 공간

生死路隱

생사로 은
 此矣有阿米次伊遣
 차의유아미차힐이견
 吾隱去內如辭叱都
 오은거내여사질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모여운견거내니질고
 於內秋察早隱風未
 1~4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

어내추찰조은풍미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차의피의부랑락시엽여

一等隱枝良出古
 10
 일등은지랑출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거노은처모동호정
 5~8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

아야 미타찰랑봉호오
 道修良待是古如
 도수랑대시고여
 9~10구: 인간적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

◆핵심 정리

| | | | |
|-----------|--|-----------|---------------|
| 간격 | 10구체 향가 | 성격 | 추모적, 애상적, 종교적 |
| 제지 | 누이의 죽음 | | |
| 주제 |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재회를 소망함.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이와의 사별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함. •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죽음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 | |

◆전체 구성

| | |
|--------------|-------------------------------|
| 1~4구 |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 |
| 5~8구 |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 |
| 9~10구 | 인간적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 |

1. 비유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

| 비유적 표현 | | 의미 | 대상 |
|--------|----------|------------------------------------|-------|
| 나뭇잎 | ‘이른 브락매’ | 누이의 때 이른 죽음에 대한 놀람과 안타까움 (아쉬움) | 요절 |
| | ‘브러덜 낄’ |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떠 올리게 하는 계기 | 죽음 |
| | ‘흐든 가지’ | 누이의 죽음에 화자가 무심할 수 없는 까닭 | 같은 부모 |



| | |
|-----------|---|
| 효과 |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여, 누이의 요절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함. |
|-----------|---|

2. 공간의 대비와 화자의 태도

| | | | | |
|-------------|---|-------------|--------------|---|
| ‘이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 • 현재 공간 • 이별의 공간 | 화자 → | ‘미타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승(극락세계) • 미래 공간 • 재회의 공간 |
|-------------|---|-------------|--------------|---|

종교적으로 극복

4-(1) 제망매가

◆감상의 정리

「제망매가」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동생을 추모하는 성격의 향가이다. 이 작품은 세련되고 정제된 형식으로 10구체 향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른 바람’, ‘뜨러덜 님’, ‘흐든 가지’ 등의 뛰어난 비유를 통해 젊은 나이에 죽은 누이동생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허무감 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제10구의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에서는 누이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성

향가의 형식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 4구체 향가는 신라의 민요가 정착된 것이고, 8구체 향가는 4구체 향가가 확대된 것이다. 10구체 향가는 8구체 향가에 2구를 더 보탠 것인데, 대체로 시상을 ‘4구-4구-2구’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2구의 첫 부분에는 ‘아야’, ‘아으’ 등의 감탄사가 사용되는데, 이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시적 전환을 하는 수법으로 대상을 자신의 내면에 정서화한다는 점에서 서정적 구조의 완결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탄사는 조선 전기의 시조 종장 첫머리나 가사의 낙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제망매가”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구의 의미와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파악해 보자.

(1) 다음 시구들이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말해 보자.

| | | |
|---|-------|------------|
| 어느 구슬 이른 바람에 이에 데에 뜨러덜 님. 흐든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드론더. | 이른 바람 | 누이의 요절(夭折) |
| | 떨어질 잎 | 죽은 누이 |
| | 한 가지 | 같은 부모 |

(2) 이 작품에서 비유적 표현의 시구들을 사용한 효과를 파악해 보자.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여, 화자가 누이의 요절에 대해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2 화자의 정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알아보자.

(1) 이 작품을 화자의 정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
|-------|-------------------------------|
| 1~4구 |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 |
| 5~8구 |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 |
| 9~10구 | 인간적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 |

(2) 제9구의 첫머리에 있는 감탄사 ‘아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아야’는 앞서 전개된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즉,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삶의 고뇌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으로, 1~8구까지 이어져 오던 비극적 정서를 슬픔의 극복 의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1)과 (2)를 바탕으로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말해 보자.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은 시상을 3단(4구-4구-2구)으로 전개하며, 결구(낙구)의 첫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4-(1) 제망매가

3 다음 글을 바탕으로 향가를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향가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

향가는 향찰(鄉札)이라는 특수한 문자로 표기된 시가 갈래다. 향찰이라는 글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문자다. 예컨대 '님은'을 표기하고자 할 때에 앞의 글자는 한자의 뜻을 빌려 '主(임금 주)'로, 뒤의 글자는 한자의 음을 따서 '隱(숨다 은)'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찰은 삼국 중 신라에만 있었던 우리 식의 글자였다. 신라인들은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쓰는 한편, 이를 곧 변용시켜서 향찰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안해 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뛰어난 지혜를 만나게 된다.

- 박노준, 『옛사람 옛 노래 향가와 속요』

우리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당시에 널리 쓰이던 한자(漢字)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향찰이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한자를 변용해 쓴 독창적 문자였다는 사실은 향가가 신라 시대의 우리말 노래, 즉 한국 문학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가는 신라 시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를 잘 보여 주는 귀중한 문학 유산이자,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잘 보여 주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4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망매가」와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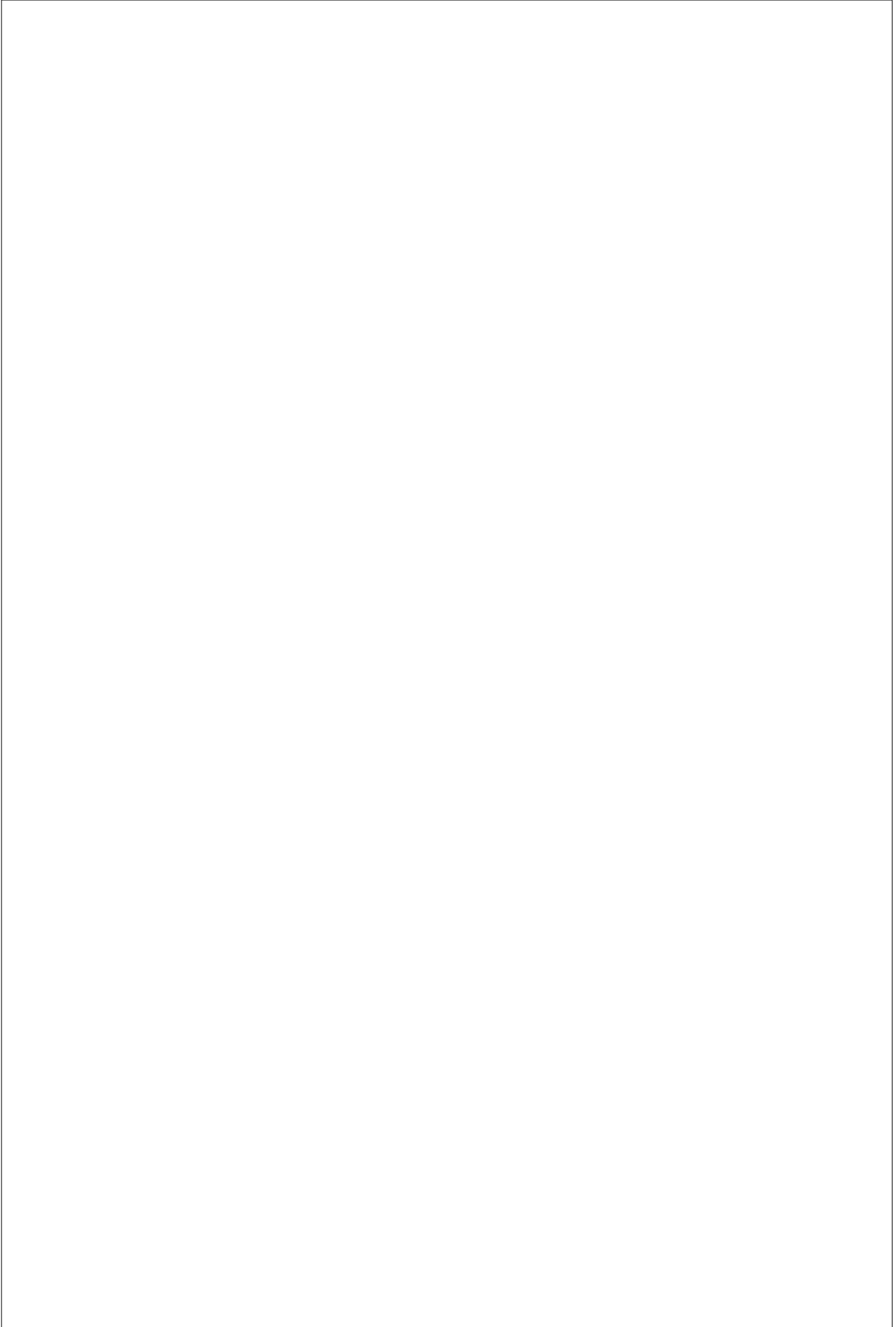
| | |
|--------------------|---------------|
| 간 봄 그리매 | 去隱春皆理米 |
| 모든 것사 우리 시름 |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
| 아름 나토샤온 |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
| 즈시 살쫂 디니저 | 兌史年數就音墮支行齊 |
| 눈 돌칠 스이예 | 目煙廻於尸七史伊衣 |
| 맛보옵디 지소리 | 逢烏支惡知作乎下是 |
| 낭(郎)이여 그릴 모스미 녀울 길 |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
| 다북 모솔히 잘 밤 이시리 |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

[현대어 풀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눈 돌릴 사이라도 / 만나 보기 이루리.
 낭이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 다북쪽 마을에서 잘 밤이 있으리.

- 득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 「제망매가」 | 「모죽지랑가」 |
|---------------|--|--|
| 내용적 측면 | 신라의 승려인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도 재회를 기약하는 내용 | 화랑인 '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내용 |
| 형식적 측면 | ・'이른 부름(이른 바람), '뜨러덜 낚(떨어질 입), '후든 가지(한 가지)' 등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누이와의 사별에서 느끼는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함. ・10구체 향가의 일반적 형식을 따라 '4구-4구-2구'의 3단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2구(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놓이고 시상이 마무리됨 |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죽지랑'에 대한 추모의 정을 극대화함. ・'간 봄(지나간 봄), '다북 모솔(다북쪽 마을)' 등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정서를 표현함. ・8구체 향가로 '2구-2구-2구-2구'로 구성되고, 마지막 2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되면 서 시상이 마무리됨. |

4-(1) 제당매가



4-(1) 제망매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生死(생사)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눈 가늠다 말스도
 묻다 니르고 가늠넛고.
 어느 古詩 ①이른 부러매
 이에 蔑에 ②쁘러덜 넛곤
 훈든 가지라 나고
 ③가는 곧 모든론던.
 아야 ④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⑤도(道)닷가 기드리고다.(김완진 해독)
 - 월명사, 「제망매가」

(나)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사 우리 시름
 아흠 나토샤온
 즈시 살쫂 다니져.
 눈 돌칠 스이에
 맛보옵디 지소리.
 낭(郎)이여 그릴 ㅁㅁ미 녀올 길
 다붓 ㅁㅁ히 잘 밤 이시리. (김완진 해독)
 - 득오, 「모죽지랑가」

(다)
 늦겨곰 부라매
 이슬 불간 두라리
 흰 구름 조초 떠 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기랑이 즈시올시 수프리야.
 일오나릿 지벼괴
 낭이여 디니더시온
 ㅁㅁ미 古詩 좃느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돌 두풀 곳가리여. (김완진 해독)
 - 총담사, 「찬기파랑가」

오금고등학교 (서울)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정을 절제하는 담담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탄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구체적 공간을 설정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인

식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 속에 화자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색채 대비를 통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2. (가)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골 옛집 앞을 지나
 뒷산 등성이를

 오늘은 상여(喪輿)로 넘으시는 아버지.

 낮익은 고갯길엔
 마른풀 희게 우거졌고

 이른 봄 찬 날씨에
 허허로운 솔바람 소리.

 -아버지,
 생전(生前)에 고갯길을 몇 번이나
 숨차시게, 숨차시게 넘으셨던가요?
 - 김종길, 「고갯길」

- ① 죽음이 끝은 아니니,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라 믿고 슬픔을 이기십시오.
- ② 슬픔에만 빠지지 마시고 남아 있는 가족을 생각하셔서 힘을 내십시오.
- ③ 너무 슬퍼하면 아버님도 마음 편히 못 가실 것이니 이제 눈물을 거두십시오.
- ④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언제나 슬픈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 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니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 여기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4-(1) 제망매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生死(생사)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묻다 니르고 가느닛고.
 어느 古(고)술 이른 부루매
 이에 데에 뿌러딜 님근,
 ① 흔든 가지라 나고
 가논 곧 모드르던
 아야 ②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나)
 ③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ㅎ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후면 아니 올세라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⑤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 월명사, 「가시리」

(다)
 덕(德)으란 곰비에 받잡고
 복(福)으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⑥ 정월(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ㅎ올로 널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블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니미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문
 넷나를 님고신더
 아으 동동(動動)다리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ㅎ야 두고
 니물 ㅎ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즈로 갓곤
 아으 나술 반(盤)잇 저 다호라
 ⑦ 니의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미상, 「동동」

달천고등학교 (울산)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 (다)와 달리 낙구의 감탄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나)는 (가), (다)와 달리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바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가), (나)와 달리 후렴구를 통해 송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부재한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이승과 대비되는 곳으로 시적 대상과 재회할 공간이다.
- ② ㉡ 여음을 제외하면 3.3.2조의 3음보 율격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구전되어 오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다.
- ④ ㉣ 임과 대조되는 자연물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해 화자의 소망이 좌절된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9. (가)의 화자 [A]와 <보기>의 화자 [B]가 나눈 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사 우리 시름
 아릅 나토사온
 즈시 살쫂 다니져
 눈 돌칠 수이에
 맛보옵디 지소리
 낭(郎)이여 그릴 무슴미 녀올 길
 다붓 무솔히 잘 밤 이시리

- 득오, 「모죽지랑가」

- ① [B] : 훌륭한 인품의 죽지랑이 지금 제 곁에 없다니 애통합니다.
- ② [A] : 죽은 누이에게 제가 직접 하직인사를 못해서 속상합니다.
- ③ [B] : 죽지랑과 함께 했던 지난 봄이 너무나 그리웁습니다.
- ④ [B] : 또한, 지금은 죽지랑을 만날 수 없어서 슬픉니다.
- ⑤ [A] : 불도에 정진함으로써 고통과 슬픉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10.

(1) (가), (나), (다)의 갈래를 각각 쓰시오.

(2) ㉠, ㉡를 현대어로 풀이하고,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3) (다)에서 임을 비유한 말을 모두 찾아 적고, 이를 바탕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동동” 말력 정리

| | |
|--|--|
| <p>서사 덕(德)으란 곱비에 받좁고 <small>뜻전에 혹은 신령님께</small> 복(福)으란 립비에 받좁고 <small>앞전에 혹은 임금님께</small> 덕(德)이어 복(福)이라 호놀 나수라 오소이다 <small>복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small> 아으 동동(動動)다리 <small>후렴구</small></p> | <p>[현대어 풀이] 덕일랑 신령님께 바치우고 복일랑 임에게 바칩니다. <small>임금님</small>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 서사: 임(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함.</p> |
| <p>본사 정월(正月)스 다투트 뜨른 <small>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small> 1월령 아으 어저 녹저 호논디 <small>대조</small> 누릿 가운데 나곤 <small>몸</small>하 호올로 널셔 <small>화자</small>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정월의 넷물은 아아 열고 녹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이 몸은 홀로 살아가네. 아으 동동다리 ...> 1월령: 임 없이 살아가는 의로운 처지를 호소함.</p> |
| <p>2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small>인동회</small> 아으 노피 현 <small>고매한 인동을 지닌 임에 대한 비유</small> 등(燈)스 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이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등불 걸구나. 만 사람 비취실 모습이시네. 아으 동동다리 2월령: 임의 밝어난 인동을 예찬함.</p> |
| <p>3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혼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여 <small>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함</small> 노미 브를 즈슬 디너 나샏다 05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삼월 지나며 핀 아아 봄 산 가득 진달래꽃.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너 나셨네. 아으 동동다리 ...> 3월령: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함.</p> |
| <p>4월령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small>꿩고리 새여</small> <small>대조: 꿩고리는 다시 왕지만</small> 므슴다 녹사(錄事)니곤 <small>임은 화자를 찾아오지 않음.</small> 넛나를 닛고신며 10 아으 동동(動動)다리 <small>단오: 단오떡을 해 먹고 여자는 청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는 날임.</small></p> | <p>사월 아니 잇여 아아 오시는구나 꿩고리 새여. 어이타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아으 동동다리 ...> 4월령: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며 원망함.</p> |
| <p>5월령 오월(五月) 오 일(五日)에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small>단오날 먹는 익모초즙: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small> 즈른 힐 장존(長存)호살 약(藥)이라 받좁노이다 15 아으 동동(動動)다리 <small>유두일: 신라 때 유래한 것으로, 나쁜 일을 떨어 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음.</small></p> | <p>오월 오 일에 아아 단오날 아침 약은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 5월령: 임의 장수를 기원함.</p> |
| <p>6월령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보름 빛 다호라 <small>△: 임에게 버려진 화자의 처지 비유</small> 도라보실 니물 적곰 좃노이다 20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유월 보름에 아아 버림에 버린 빛과 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잠깐 좃아갑니다. 아으 동동다리 ...> 6월령: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름.</p> |

| | |
|---|---|
| <p>백중날: 송려들이 재(齋)를 설(設)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날임.</p> | |
| <p>7월령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중(百種) 배(排)하야 두고 니를 혼더 너가져 화자의 궁극적 소망: 임과 함께하고 싶음.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칠월 보름에 아아 백중 제물 차려 놓고 임과 함께 가고 싶네. 원을 비읍니다. 아으 동동다리 ...> 7월령: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함.</p> |
| <p>가배: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내는 날임.</p> | |
| <p>8월령 팔월(八月)스 보로든 아으 가배(嘉俳)니리마른 한가위 「니를 띄셔 녀곤 △: 임이 함께해야만 진정한 한가위임 오늘날 가배(嘉俳)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팔월 보름은 아아 가윗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다니거든 오늘이 가위로구나. 아으 동동다리 ...> 8월령: 임을 그리워함.</p> |
| <p>중앙절: 세시 명절의 하나로 음력 9월 9일을 이르는 말. 이날 남자들은 시를 짓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만들어 먹고 놀았음.</p> | |
| <p>9월령 구월(九月) 구 일(九日)에 아으 약(藥)이라 먹논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하애라 아으 동동(動動)다리 '새셔'를 '초가집'으로, '가만하애라'를 '조용하구나'로 해석하기도 함.</p> | <p>구월 구 일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 누런 국화꽃 안에 드니 갈수록 아득하구나. 아으 동동다리 ...> 9월령: 임이 계시지 않아 쓸쓸해함.</p> |
| <p>10월령 시월(十月)에 '보리수나무'로 해석하기도 함.</p> | |
| <p>아으 꺾미워 버린 다호라 △: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비유 「젓거 버리신 후(後)에 △: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한탄함. 디니실 혼 부니 엄스샷다」 05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시월에 아아 저며 놓은 고로쇠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네. 아으 동동다리 ...> 10월령: 임에게 버림받아 슬퍼함.</p> |
| <p>11월령 십일월(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흙바닥</p> | |
| <p>아으 한삼(汗衫) 두퍼 누워 속적삼 슬흠 사라온더 고우닐 스키옵 녀셔 10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십일월 봉당 자리에 아아 한삼 덮어 누워 슬픔을 사르고 있네. 고운 임 떨어져 실아가네. 아으 동동다리 ...> 11월령: 임과 떨어져 있어 외로워함.</p> |
| <p>12월령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기로 갖곤</p> | |
| <p>아으 나술 반(盤)잇 저 다호라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 비유 니의 알떡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릅습노이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15 아으 동동(動動)다리</p> | <p>십이월 분디나무로 깎은 아아 소반의 재(젓가락)와 같네. 임의 앞에 가지런히 놓으니 손이 가져다 무읍니다. 손님 아으 동동다리 ...> 12월령: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퍼함.</p> |

4-(1) 동동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고려 가요 | 성격 | 민요적, 송축적, 연가적(戀歌的) |
| 형식 | 분연체, 월령체 | 계제 | 세시 풍속, 자연물, 남녀의 이별 등 |
| 주제 |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과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 • (1)연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며,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음. • 후렴구 '아으 동동(動動)다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킴. | | |

◆전체 구성

| | 중심 내용 | 소재 | 세시 명칭 | |
|-----------|-------------------------|------------------------|---------|---------|
| 서사 | 임(임금)의 덕(德)과 복(福)을 기원함. | | - | |
| 본사 | 1월명 | 임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함. | 나릿 들 | |
| | 2월명 | 임의 빼어난 인품을 예찬함. | 등(燈)스불 | 연등회 |
| | 3월명 |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함. | 돌잇곳 | - |
| | 4월명 |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며 원망함. | 곳고리 새 | - |
| | 5월명 | 임의 장수를 기원함. | 아춤 약(藥) | 수릿날(단오) |
| | 6월명 |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름. | 빗 | 유두일 |
| | 7월명 |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함. | 백종(百種) | 백종(백중날) |
| | 8월명 | 임을 그리워함. | 가배(嘉排) | 가배(한가위) |
| | 9월명 | 임이 계시지 않아 쓸쓸해함. | 황화(黃花)꽃 | 중양절 |
| | 10월명 | 임에게 버림받아 슬퍼함. | 부룻 | - |
| | 11월명 | 임과 떨어져 있어 외로워함. | 한삼(汗衫) | - |
| | 12월명 |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퍼함. | 저 | - |

*임과 화자를 비유한 시구

| 대상 | 월 | 시어 | 대상의 특성 |
|-----------|------------|-------------|-------------------|
| 임 | 2월 | 노피 현 등(燈)스불 |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임. |
| | 3월 | 돌잇곳 | 아름다운 모습을 지님. |
| 화자 | 6월 | 별해 부룬 빗 |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임. |
| | 10월 | 저미연 부룻 | |
| | 12월 | 반(盤)잇 저 |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함. |

감상의 정리 I

「동동」은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열두 달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 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학궤범』에 한글로 실려 있다. 이 작품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하였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다른 연과는 달리 1연은 서사로서 송축(頌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아 작가 한 사람이 표출한 정서로 보기 힘든데, 이 역시 구전된 분연체(分聯體) 노래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지식 참고 I

월령체(月令體)

월령체는 한 해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시가의 형식을 말하며,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달

4-(1) 동동

을 한 절로 노래하기 때문에 12개의 절로 나누어지는데, 작품에 따라서 서두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3개의 절이 되기도 한다. 각 절은 그 달의 자연 현상, 명절, 세시 풍속 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것이 「동동」에는 2월 연등절, 5월 단오, 6월 유두일, 7월 백중, 8월 한가위, 9월 중앙절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월령체는 민요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후 조선 후기 가사인 정학유의 「농가월령가」에서도 나타난다.

“동동” 박음 달동 심리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화자와 입을 비유한 표현을 찾아보자.

| 화자 | 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버린 빗. • 10월 : 저며 놓은 고로쇠 • 12월 : 소반의 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 높이 켜 등불 • 3월 : 진달래꽃 |

2 이 작품에 나오는 세시 명절을 정리해 보고, 작품의 전개 방식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

(1) 다음 여섯 개의 달에 나타나는 세시 명절을 정리해 보자.

| 2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연등회 | 수릿날(단오) | 유두일 | 백중(백중날) | 가배(한가위) | 중앙절 |

(2) (1)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전개 방식에 나타나는 특징을 말해 보자.

이 작품은 서사를 제외하면 12개의 연이 열두 달의 차례에 맞춰 전개되며, 각 연에서는 그 달의 자연 현상이나 세시 풍속이 화자의 정서와 함께 나열된다.

3 고려 가요에 대한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이 작품의 전승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고려 가요는 조선 시대 때 궁중 연회에서 연행된 음악을 기록한 『악학궤범』,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등의 악서(樂書)에 실려 전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려 가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된 것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되어 전승된 결과물이다.

(1) 이 작품에서 내용이나 정서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이 작품의 2~13연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으며, 그 주된 정서는 입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슬픔, 입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사인 1연은 입에게 복을 바치러 오라는 송축의 내용이어서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이다.

(2) (1)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를 고려 가요의 전승 과정과 관련지어 말해 보자.

이 노래가 궁중에 유입되어 연회에서 불렸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볼 때, 이러한 이질성은 연회 의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본래 민요에는 없었던 것이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1) 동동

4 다음 작품을 「동동」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고려 가요의 갈래상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파악해 보자.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聖代)

날러는 엇디 살라 하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聖代)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聖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듯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聖代)

- 작자 미상, 「가시리」

(1) 두 작품에 나타난 고려 가요의 내용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을 파악해 보자.

- 내용적 특징: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담고 있다.
- 형식적 특징: 몇 개의 연으로 나뉜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연에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다.

(2) 두 작품의 특징을 바탕으로 고려 가요의 문학적 가치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고려 가요는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과 경쾌한 리듬을 살리는 기교를 보여 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덕(德)이란 곰비에 받잡고
 복(福)이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후 생략>

정월(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념셔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니미 브롤 즈슬
 디녀 나샏다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문
 ㉣넛나를 닛고신더

오월(五月) 오 일(五日)에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즈믄 힐 장존(長存)흥샏
 약(藥)이라 받잡노이다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부른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히야 두고
 니를 흥디 념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팔월(八月)스 보로문
 아으 가배(嘉俳) 나리마론
 니를 뵈셔 념곤

오늘날 가배(嘉俳)샏다

구월(九月) 구일(九日)에
 아으 약(藥)이라 먹논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히애라

시월(十月)에
 아으 저미연 부룻 다호라
 것거 부리신 후(後)에
 ㉤디니실 흥 부니 업스샏다

십일월(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汗衫) 두퍼 누워
 슬홀스라온더
 고우닐 스키옴 념셔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즈로 갓곤
 아으 나솔 ㉥반(盤)잇 저 다호라
 니미 알피 드러 얼이노니
 쇼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 작자미상, 「동동(動動)」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가요로서 최초의 월령체 형식의 시가이다.
- ②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별에 따른 정한을 그리고 있다.
- ③ 각 달의 세시풍속이나 자연의 변화 양상을 다채롭게 그려냈다.
- ④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아 비슷한 성격의 여러 노래의 합성으로도 볼 수 있다.
- ⑤ 경치에 대한 묘사를 전제로 임에 대한 영원한 기다림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송축(頌祝)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 ② ㉡ : 각 연에 형태적인 통일감 및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
- ③ ㉢ : 시적 대상의 뛰어난 자질에 대한 예찬적 성격으로 이

해할 수 있는 구절이다.

- ④ ㉔ : 시적 대상과 함께 한 지난날을 추억하며 그리움에 빠져 있음이 드러난 구절이다.
- ⑤ ㉕ : 사물의 속성과 화자 자신의 처지가 유사함을 전제로 표현한 구절이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3. 이 시의 화자가 썼을 법한 일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월 : 봄기운이 감도는 들에 나가 어느덧 녹아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가는 나의 처지가 무척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 ② 3월 : 늦봄에 들에 산에 활짝 핀 진달래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느껴졌다.
- ③ 6월 : 여기저기 흐르는 냇물에 머리를 감고 버려진 빛을 보니 어쩐지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우울함이 느껴졌다.
- ④ 9월 : 주변에서는 국화꽃으로 국화전이며 차를 마신다고 하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집만은 고요함만 느껴졌다.
- ⑤ 11월 : 날은 벌써 추워져 집마져 한기가 느껴지는데 차가운 잠자리에서 임의 생각만 더욱 간절하여 슬픔이 느껴졌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4. 위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스룩(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단한림(陣翰林) 쌍운주필(雙韻走筆)
 통기대칙(通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당(試場)서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엽(葉) 금혹스(琴學士)의 옥순문싱(玉筍門生) 금혹스(琴學士)의 옥순문싱(玉筍門生)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 <제1장>
 - 한림 제유, 「한림별곡」중에서

현대어 풀이

•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록변려문,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을 맞추어 써 내려간 글,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해의(海衣), 김양경의 시와 부(賦)(아,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굉장하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나까지 몇 분입니까?)

- ① 위 시와 <보기>는 모두 시적 상황에 따른 화자의 내면적 반응을 다룬 자아의 세계화가 일어난다.
- ② 위 시와 <보기>는 모두 비슷한 시기의 시가로 음악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③ 위 시는 각 연의 끝부분에 분연의 기능을 한 후렴구가 있고 <보기>에는 장르 명칭과 관련된 후렴구가 쓰였다.
- ④ 위 시가 순우리말의 다양한 문학적 표현으로 쓰였다면 <보기>는 단순한 한자어의 나열로 이뤄져 있다.
- ⑤ 위 시는 평민들의 생활 감정이 드러난다면 <보기>는 지배층의 학문적 자기 과시가 나타난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5. ㉔의 시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모두 찾아 쓰시오.

4-(1) 동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덕(德)이란 공비에 받잡고
 복(福)이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녀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웠고지어
 니미 브롤 즈슬
 디녀 나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몬
 냇나를 닛고신더
 아으 동동(動動)다리

오월(五月) 오 일(五田)애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즈몬 힐 장존(長存)흥살
 약(藥)이라 받잡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물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흥야 두고

니물 흥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팔월(八月)스 보로몬
 아으 가배(嘉俳) 나리마곤
 니물 뵈셔 녀곤
 오늘날 가배(嘉俳)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구월(九月) 구일(九日)애
 아으 약(藥)이라 먹논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흥애라
 아으 동동(動動)다리

시월(十月)애
 아으 저미연 브룻 다호라
 것거 브리신 후(後)애
 디니실 흥 부니 업스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십일월(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汗衫) 두퍼 누워
 슬홀 ㉢스라운더
 고우닐 슝스옴 녀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즈로 갓곤
 아으 나솔 반(盤)잇 저 다호라
 니미 알피 드러 ㉣얼이노니
 쇼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미상, '동동'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내용과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화양계, 공방전과 같은 계열의 작품이다.
- ②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열두 달에 맞추어 노래한 작품으로 한림별곡, 공무도하가와 같은 갈래의 작품이다.
- ③ 우리말로 불리면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특성이 있는 서정 가요로 황조가, 처용가와 유사한 계열의 작품이다.
- ④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아 작가 한사람이 표출한 정서로 보기 힘들며, 이런 점에서 농가월령가와 유사한 성격의

작품이다.

- ⑤ 고려 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학궤범에 한글로 실려 있는 작품으로 서경별곡, 정석가와 같은 갈래의 작품이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의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소리 '동동'의 의태어라고 할 수 있다.
- ② 작품에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③ 반복을 통해 시상전개에 있어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④ 작품에 운율감을 주어 흥겨움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 ⑤ 민간에서 불리다 궁중음악으로 유입될 때 첨가된 것이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8.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과 12연에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한탄이 보인다.
- ② 3연과 4연에서 임의 인격과 모습을 송축하고 있다.
- ③ 5연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
- ④ 7연과 10연에서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이 보인다.
- ⑤ 13연에서 임과 사랑을 맺지 못한 화자의 처지가 나타난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9. 윗글의 ㉑ ~ ㉓을 현대어로 풀이해 쓰시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10. 윗글과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징 두 가지를 쓰시오.

<보기>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 작자 미상, '가시리'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11. 윗글의 2월, 6월 그리고 9월에 나타난 세시풍속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생규장전” 분석 정리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한문 소설, 전기 소설(傳奇小說) | 성격 |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 시간적 배경: 고려 공민왕 때 • 공간적 배경: 개성 |
| 제재 |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사랑 | | |
| 주제 |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남.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남. 시를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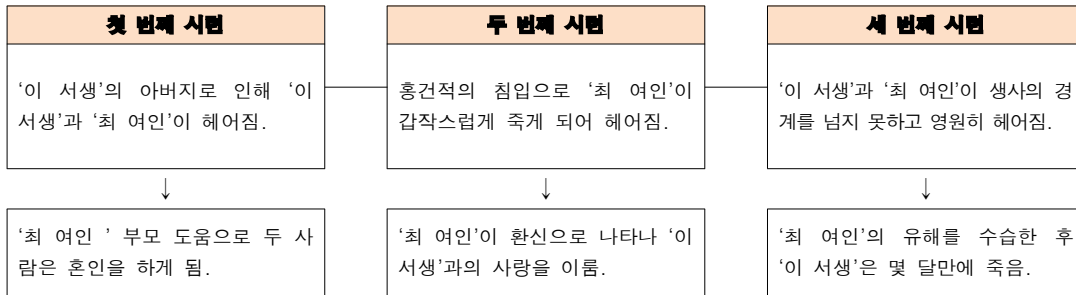
◆전제 구성

| | |
|-----------|---|
| 발단 | ‘이 서생’이 ‘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눔. |
| 전개 |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 서생’의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함. |
| 위기 | 홍건적의 침입으로 ‘최 여인’이 죽게 됨. |
| 결정 | ‘이 서생’과 ‘최 여인’의 환신이 재회하여 행복하게 지냄. |
| 결말 |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영원한 이별을 함. |

1. 작품에 나타난 전기 소설의 특징

| | |
|---------------------|---|
| 재자가인(才子佳人)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서생’은 용모가 준수하며 재주가 뛰어남. ‘최 여인’은 자수와 시문에 능하며 매우 아름답음. |
| 비현실적인 상황과 사건 | 죽은 ‘최 여인’이 환생하여 ‘이 서생’과의 인연을 이어감. |
| 한문 문어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문 문체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서술함. ‘최 여인’이 ‘이 서생’과 작별하며 이별과 죽음의 슬픔을 한시로 표현함. |

2. 주인공이 겪는 세 가지 시험과 그 대응



3. ‘최 여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

- ‘이 서생’과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임.
-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냄.

4. 삽입된 노래의 기능

| | |
|---------------|---|
| 정서적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독자에게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줌.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함. |
| 서사적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함.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함. |

5.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 의식

「이생규장전」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여타 고전 소설과는 달리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준다. 이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후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냈던 김시습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6.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사관

작가는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알 수 있다.

7.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의 공통점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웅궁부연록」, 「취유부벽정기」를 전함.

→

| 작품들의 공통점 | |
|-----------------------------|--|
|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킴. | |
| • 적극적이며,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함. | |
| • 애민적(愛民的)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남. | |
| •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함. | |

“이생규장전” 막중 막상 읽기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 | 시련의 원인 | 시련의 결과 |
|---------|---|--|
| 첫 번째 시련 | ‘이 서생’의 부모가 집안의 문벌 차이를 이유로 혼인을 반대함. | ‘이 서생’이 지방으로 가게 되어 ‘최 여인’과 이별하게 됨. |
| 두 번째 시련 | 흥건적의 침입으로 온 가족이 흩어지게 됨. | ‘최 여인’이 흥건적에게 죽임을 당함. |
| 세 번째 시련 |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 때문에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감 |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별하게 되고 ‘이 서생’ 역시 죽음을 맞이함. |

↓

| ‘이 서생’의 특징 | ‘최 여인’의 특징 |
|--|---|
| •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여 ‘최 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임. • ‘최 여인’의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 후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함. •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여 ‘최 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임. • ‘최 여인’의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 후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함. | • ‘이 서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 •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의지적 인물임. • ‘이 서생’을 위해 저승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를 사랑함. |

2 작가가 이 작품에 ‘최 여인’의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 작품에 삽입된 노래는 ‘최 여인’이 경험한 이전의 사건과 그녀의 처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떠나야만 하는 슬픔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노래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서사적인 사건 전개에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기능을 한다. 작가는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최 여인’의 노래를 삽입했을 것이다

4-(2) 이생규장전

3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를 찾아보고, 작가가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 |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 |
|---|--|
| <p>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 서생'과 함께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남</p> |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이 비현실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높임. •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함. •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함. |

4 다음 설화와 비교하여, 「이생규장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신라 풍속에 매년 중춘(仲春, 음력 2월) 8일에서부터 15일에 이르기까지 도읍의 남녀들이 다투어 흥륜사의 탑을 도는 복회(福會)를 열었다.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낭군(郎君)이 있었는데, 밤늦도록 혼자 쉬지 않고 돌았다. 한 여자도 따라 돌고 있었는데, 현이 드디어 정을 통하여 그 여자를 따라갔다.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내일 성내에 들어가서 해로운 일을 하면, 곧 왕은 반드시 좋은 벼슬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복쪽의 숲속으로 나를 쫓아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지어서 좋은 업보(業寶)를 얻게 해 주신다면, 곧 낭군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에 들어왔는데, 당할 사람이 없었다. 왕이 영을 내려,

“능히 호랑이를 사로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노라.”

하니, 김현이 대궐에 나아가 아뢰어 말하기를,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단검을 들고 복쪽의 숲으로 들어갔다. 호랑이가 낭자로 변해서 웃으며 말하기를,

“어제의 곡진했던 사연을 오직 낭군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더니,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고 쓰러지니 곧 호랑이었다. 그 후 김현이 벼슬길에 오른 뒤 서쪽 냇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호원사(虎願寺)'라고 했다.

- 작자 미상, 「호원(虎願)」

두 작품은 모두 일상적 세계를 초월한 남녀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전기적 사건 전개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호원」과 달리 「이생규장전」에서는 인물들의 심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인물들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듯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라는 소설 갈래의 특징을 「이생규장전」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생규장전” 읽기 중 질문

1.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새 없이 만남 그 자체에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2. '최 여인'이 말한 '세 번의 가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담장을 넘어 사랑을 약속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반대를 뛰어넘어 혼인한 것이며,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여 만남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3. '최 여인'이 부른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최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 서생'에게 이별을 고하며 애끓는 심사를 노래를 통해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흥건적의 침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남편과 이별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과 또다시 찾아온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4.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다시 이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는 '최 여인'이 운명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 세상에 계속 머물면 '이 서생'에게까지 죄과가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중략>

[A]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찌꺼기는 창자에만 맷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중략>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 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메어 울었다.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玉樓春曲)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B] 도적 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돌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서생도 또한 슬픔에 견잡지 못했다. <중략>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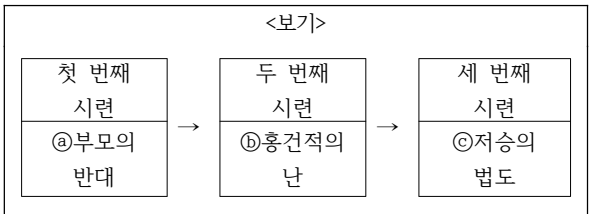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중심 서사 요소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는 자유연애를 허락하지 않는 봉건적 관습을 의미한다.
- ② ㉡에서 '최 여인'은 정절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강인한 면모를 드러낸다.

- ③ ㉔로 인한 최 여인의 죽음을 ‘환생’이라는 환상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④ ㉔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기에 전기적(傳奇的)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 ⑤ ㉔, ㉔, ㉔를 통해 자아와 세계의 치열한 대결이 드러난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지난 일에 대한 내력이, [B]는 이별을 앞둔 슬픔이 드러난다.
- ② [A], [B] 둘 다 전고(典故)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A]에서는 등장인물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만, [B]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 ④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B]는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 ⑤ [A]에서 발생한 문제적 상황이 [B]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부각된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B]의 삽입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할 때, ㉔, ㉔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한 가지씩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 |
|--------|---|
| 정서적 기능 | ㉔ |
| 서사적 기능 | 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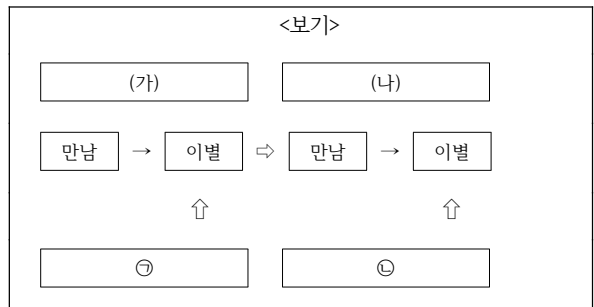
오금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대화와 삽입된 시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을 주축으로 전기적인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5. 윗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여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은 최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 ② 최랑과 이생은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불태우며, ㉔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가)의 ‘만남’은 (나)와 달리 제도적 장애를 극복하여 이론 결과로, 작가의 진보적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④ (나)의 ‘만남’은 (가)와 달리 초월적 존재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나 운명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 ⑤ (가)는 현실적 사건을, (나)는 비현실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나)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맷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의 깊은 인연이 맺혀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낭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 이튿날 여인은 이 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五冠山)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란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

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흉사(吉凶事)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마) 최 여인은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玉樓春曲)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 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 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라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바)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중간에 시를 삽입하여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드러낸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7.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 여인은 갑작스런 횡액에 흥진비래(興盡悲來)를 깨닫고 있어.
- ② 이 서생은 최 여인을 오매불망(寤寐不忘)하다 죽음을 맞이 하는 지고지순(至高至順)한 인물이야.
- ③ 최 여인은 흥건적에게 죽임을 당한 각골통한(刻骨痛恨)의 심정을 이 서생에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적극적인 인물이야.
- ④ 이 서생과 최 여인은 뛰어난 용모와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 아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이야.
- ⑤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환생한 최 여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생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지닌 인물이야.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8. 윗글을 바르게 감상한 것은?

- ① 도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최 여인이 언급한 삼세의 인연이 지닌 의미를 해석한다.
- ②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부모의 유해를 모아 매장하고 장사를 치르는 행동의 의미를 해석해본다.
- ③ 최 여인을 따라 죽음을 맞는 이 서생을 통해 이승과 저승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글쓴이의 생사관을 파악한다.
- ④ 최 여인이 환생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은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려는 소설적 장치임을 이해한다.
- ⑤ 두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난 사랑이 초래하는 비극성을 심화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임을 이해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던지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 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귐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백 년을 넘었습니다. 사체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써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붙잡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낭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서생은 기쁘고 또 고마워서, /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家産)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 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에 같이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 서생'의 부모가 집안의 문벌 차이를 이유로 혼인을 반대한다.
- ② '이 서생'은 살아 돌아온 '최 여인'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다.
- ③ 두 사람의 사랑은 흥건적의 난으로 인해 두 번째 시련에 맞닥뜨린다.
- ④ '이 서생'과 '최 여인'은 담 너머로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 ⑤ '최 여인'은 흥건적의 무리에 맞서 싸워 정조를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10. ㉠과 관련된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장춘몽(一場春夢) ② 두문불출(杜門不出)
- ③ 호사다마(好事多魔) ④ 고진감래(苦盡甘來)
- ⑤ 흥진비래(興盡悲來)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이 서생은 최 여인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서생의 아버지가 이 서생을 시골로 쫓아 버리자, 최 여인은 상사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가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두 사람의 혼례를 성사시킨다. 이후 이 서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만 흥건적의 난이 일어난다.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귄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백 년을 넘었습니다. 사체가 이렇게 되자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형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

“시조 네 편” 분석 정리

●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가

성삼문

·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함.

○: 중의적 표현 ‘이제’의 지조를 닮으면서 자신이 ‘이제’보다 더 큰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함.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

05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 ‘수양 대군(세조)’

주려 주글진들 재미(採薇)도 하는 것가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

고사리를 캐어 먹음.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을 받음.

고 하며 고사리를 캐어 먹었는데 그 고사리는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괴(뒤)사해 낫드니

주나라의 땅에서 난 것이므로, 화자는 고사리마

주나라 ‘무왕’, ‘수양 대군(세조)’

저도 먹지 않겠다는 굳은 절의를 보여 줌.

[현대어 풀이]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 서야 되겠는가? /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는가?

◆핵심 정리

| | | | |
|----|--|----|---------------|
| 간체 | 평시조 | 성격 | 절의적, 풍자적, 비판적 |
| 제재 | ‘백이’와 ‘숙제’의 고사 | | |
| 주제 |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와 지조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법, 설의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냄. ·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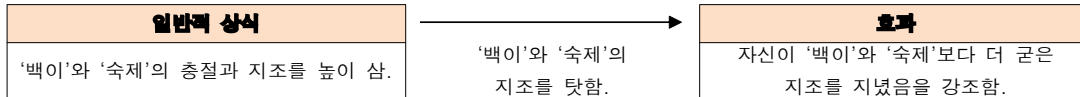
◆전체 구성

| | 현대어 풀이 | 구성 |
|----|-----------------------------------|-----------------------|
| 초장 |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 ‘백이’와 ‘숙제’에 대한 한탄 |
| 중장 |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야 되겠는가? | ‘백이’와 ‘숙제’의 행위에 대한 질책 |
| 종장 |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는가? | 굳은 지조와 절개에 대한 다짐 |

1. 시어의 풍의적 의미

| | | |
|-------|-----------------------|---------------------------|
| ‘수양산’ |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 | ‘수양 대군(세조)’ |
| ‘재미’ | 고사리를 캐어 먹음. |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祿)을 받음. |
| ‘뒤’ | 주나라의 ‘무왕’ | ‘수양 대군(세조)’ |

2. 일반적 상식을 꺾이는 표현의 효과



●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

나 계량

계절의 변화 {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혼 님
 비 오듯 떨어지는 배꽃, 또는 봄비 → 하강적 이미지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 시간의 흐름, 하강적 이미지, 이별의 정서 심화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① 임과 떨어진 공간적 임을 향한 그리운 마음

물리적 거리

② 이별로 인한 임과의 심적인 거리

[현대어 풀이]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때에 울며 (손) 잡고 헤어진 임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임도 나를 생각하고 깨실까? / 천 리 길 (머나먼 곳에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핵심 정리

| | | | |
|----|---|----|----------|
| 감체 | 평시조 | 성격 | 감상적, 애상적 |
| 제제 | 이화우, 추풍낙엽, 이별 | | |
| 주제 | 임을 그리는 마음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강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이화우', '추풍낙엽')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함. •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어를 사용함. | | |

◆전체 구성

| | 현대어 풀이 | 구성 |
|----|------------------------------------|--------------------|
| 초장 |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때에 울며 (손) 잡고 헤어진 임 | 봄에 임과 이별함. |
| 중장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임도 나를 생각하고 깨실까? | 가을에 임을 그리워함. |
| 종장 | 천 리 길 (머나먼 곳에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외로워함. |

1. 표현상의 특징



● 「만흥(漫興)」

가득찰만 흥겨울(흥) → 흥겨움이 마음속에 가득차다. (속세를 벗어난 자연에서의 흥취)

다 만흥(漫興) | 율선도

○: '자연'을 나타내는 중심 소재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뒹집을 짓노라 하니

자연 속, 속세와 떨어진 곳 초가집 - 소박한 생활을 의미함. 안빈낙도

그 모른 놈들은 온는다 한다마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 화자의

소박한 뜻을 모르는 남들의 눈에 비친 화자의 모습을 표현

보리밥 푼노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소박한 생활을 의미함. 알맞게

바윗 곳 뭍의 슬긱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러 줄이 이시랴

속세에서의 부귀영화 부러워할

「: 설의적 표현 -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음.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누군가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똥더라

생각해 보니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주제어

「: 세상의 권력보다 자연에 묻혀 사는 일이 더 좋아서 '소부'와 '허유'가 현명하다고 말함. <제1수> ...> 분수에 맞는 삶

「: 세상의 권력보다 자연에 묻혀 사는 일이 더 좋아서 '소부'와 '허유'가 현명하다고 말함. <제2수> ...>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 세상의 권력보다 자연에 묻혀 사는 일이 더 좋아서 '소부'와 '허유'가 현명하다고 말함. <제4수> ...>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 세상의 권력보다 자연에 묻혀 사는 일이 더 좋아서 '소부'와 '허유'가 현명하다고 말함. <제4수> ...>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 세상의 권력보다 자연에 묻혀 사는 일이 더 좋아서 '소부'와 '허유'가 현명하다고 말함. <제4수> ...>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 세상의 권력보다 자연에 묻혀 사는 일이 더 좋아서 '소부'와 '허유'가 현명하다고 말함. <제4수> ...>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연시조 | 성격 | 자연 친화적, 탈속적, 자족적 |
| 제지 | 자연을 벗하는 생활 | | |
| 주제 |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을 강조함. • 몰아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나 있음. | | |

◆전체 구성

| | | |
|----|---------------------|-----------------------|
| 1수 | 분수에 맞는 삶 |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
| 2수 |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 |
| 3수 | 산을 마주하고 있는 즐거움 | |
| 4수 |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 |
| 5수 | 자연생활을 운명으로 여김. | |
| 6수 | 자신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로 여김. |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1. 현대어 풀이

| | |
|----|--|
| 1수 |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자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기도 한다마는 어리석고 세상에 어두운 사람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
| 2수 | 보리밥과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긱 노니노라. 그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
| 4수 | 누군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천자라고 한들 이만큼 좋겠는가?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더라.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비할 곳이 없으리라. |

2.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와 속세를 나타내는 소재

| | | |
|----|---------------------|--------------|
| | 자연 | 속세 |
| 1수 | '산수', '뒹집' | '그 모른 놈들' |
| 2수 | '보리밥 푼노물', '바윗 곳 뭍' | '그 나쁜 녀나쁜 일' |
| 4수 | '임천한흥' | '삼공', '만승' |

●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라 | 작자 미상
 []: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냄.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a-a-b-a'의 구조(반복법)
 ↳ 내면적 고뇌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빅목걸새 크나큰
 []: 구체적 소재를 나열하여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함. → 열거법
 장도리로 똥쌈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너무

[현대어 풀이]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배목걸쇠를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달아 불가 하노라.

• 개~라 증가장인상적인 작품과 그 이유
 략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다. 그 이유는 마음속 답답함을 창을 달아 해소한다는 발상이 참신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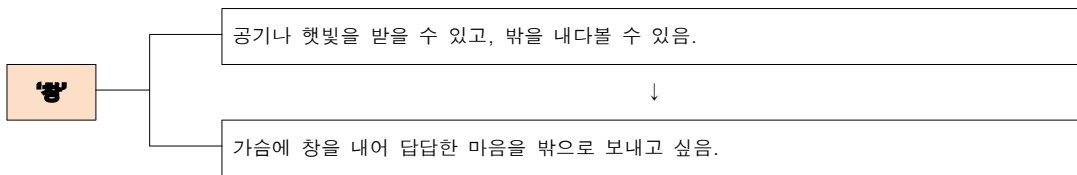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해학적, 의지적 |
| 제지 | 창 | | |
| 주제 |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학성을 획득함. • 비애와 고통을 웃음으로써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임. | | |

◆전체 구성

| | 현대어 풀이 | 구성 |
|-----------|---|----------------------|
| 초장 |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냄. |
| 중장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배목걸쇠를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함. |
| 종장 |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달아 불가 하노라. | 창을 여달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함. |

1. 시어의 의미와 참신한 발상



화자는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에서 오는 답답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창을 내어 여달고 싶다는 소망으로 표출하고 있다. 가슴을 꽉꽉 막힌 방에 비유하여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창을 만들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2. 표현상의 특징

| | | |
|-----------|------------------------------------|--|
| 반복 |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a-a-b-a' 구조를 사용하여 창을 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냄. |
| 열거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 가슴에다 만들고 싶은 창(窓)의 종류를 나열하여 무슨 창이라도 만들고 싶은 간절함을 나타냄. |
| | 암돌저귀 수돌저귀 빅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똥쌈 바가 | 창을 만드는 재료들과 만드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가슴에 창을 만들어 달고 싶은 소망을 나타냄. |

반복과 열거를 통한 수다스럽고 과장된 표현은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며, 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상황을 풀어 버리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냄.

“시조 네 편” 학습 활동 문제

1 작품 ㉔를 감상하고, 내용상의 특징과 작품의 주제를 알아보자.

(1)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화자가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본래 은나라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 신 하였던 무왕이 그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며 이를 반대했으나, 무왕은 끝내 새 왕조를 일으켰다. 그러자 두 사람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시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백이’와 ‘숙제’는 굳은 절개를 대표하는 대상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 작품의 화자는 충절의 대명사인 ‘백이’와 ‘숙제’의 지조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이 ‘백이’와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하고,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 ‘수양 대군(세조)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2) ‘수양산’에 담긴 중의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 (1)과 관련하여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 | |
|--|---|--|
| ‘수양산’의 의미 | → | 작품의 주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이’와 ‘숙제’가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 먹던 장소. • ‘세조’가 즉위하기 전의 군호(君號)인 ‘수양 대군’ | | ‘세조’의 ‘단종’ 폐위에 대한 비판과,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 |

2 작품 ㉔에 제시된 다음 시어들이 무엇을 형상화하는지 생각해 보고, 화자의 정서와 관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 보자.

| | | | |
|--------------|---|---|--------------|
| 이화우, 추풍낙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어 시간적 거리감을 드러냄. • 비와 낙엽은 모두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 | → | 효과 |
| 천 리 | 임과 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과장하여 드러냄. | | 이별의 정서를 심화함. |

3 작품 ㉔를 감상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1) ‘자연 속의 삶’과 ‘속세의 삶’을 드러내는 시구를 찾아보고, 각 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자연 속의 삶’ | ‘속세의 삶’ | 중심 내용 |
|----|------------------------|------------|-------------------|
| 1수 | ‘산수’, ‘뉘집’ | ‘그 모른 놈들’ | 분수에 맞는 삶. |
| 2수 | ‘보리밥 푹노물’, ‘바빻긔 물긔’ | 그 나쁜 녀나쁜 일 |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
| 4수 | 임전한흥 | ‘삼공’, ‘만승’ |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

(2) (1)의 내용을 참고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어떠한지 말해 보자.

화자는 속세의 삶이 부럽지 않다고 하며, 자연 속의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고 세속적 부귀영화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화하며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작품 ㉔를 감상하고,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자.

(1) 각 장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 | | | |
|----|-------------------|---|--|
| 초장 |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냄. | → | ‘창 내고자’라는 시구를 반복하고, 답답한 마음을 사방이 막힌 방에 비유함. |
| 중장 |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함. | → |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열거함. |
| 종장 |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열거함. | | |

4-(2) 시조 네 편

(2) 작품 ㉗~㉜와 비교할 때,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작품 가 ~ 다 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작품은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 길다.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평시조가 지니는 간결하고 정제된 아름다움 대신 숨 가쁘게 많은 말을 이어 나가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어조가 느껴진다.

5 작품 ㉗~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 조선 시대 시조의 전개 양상을 파악해 보자.

| 작품 | ㉗ | ㉘ | ㉙ | ㉚ |
|--------|-----------|-----------|----------------|----------------------|
| 작가의 신분 | 사대부 | 기녀 | 사대부 | 작자 미상(서민) |
| 내용 | 굳은 절의와 지조 | 임에 대한 그리움 | 자연을 벗하고 사는 즐거움 |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
| 형식 | 평시조 | 평시조 | 연시조 | 사설시조 |

6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조선 시대의 고시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고시조의 어떤 점을 계승하였는지 말해 보자.

손톱으로 툇 튀기면
 째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리우고 있건만.

- 이희승, 「벽공(碧空)」

| 고시조와의 차이점 | 고시조에서 계승한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조는 2구가 하나의 장을 이루어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1구가 하나의 행을 이루고 있다. 고시조는 연시조를 제외하고는 제목이 없으나, 이 작품은 제목이 있다. | 중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고, 4·4조 또는 3·4조로 4음보를 이루는 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

을 계승하였는지 말해 보자.

가을 하늘(벽공)을 맑고 투명한 유리에 빗뎀. →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손톱으로 툇 튀기면
 째하고 금이 갈 듯,
 원관념: 파란 가을 하늘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촉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주재어 맑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음.
 드리우고 있건만.
 - 이희승, 「벽공(碧空)」
 여운을 남기는 말로, 가을 하늘과 달리 인간사는 깨끗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음.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 시조 | 성격 | 감각적, 묘사적, 영탄적, 예찬적 |
|----|--|----|--------------------|
| 제재 | 가을 하늘 | | |
| 주제 |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과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 | | |
| 특징 | • 맑고 깨끗한 하늘을 인간사의 대조하고 여운을 줌. • 초창, 중창, 종창을 연으로 나누어 쓴 구별 배행 시조임. •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 감각적 수법이 엇보임.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限)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니 짜해 닳드니
 - 성삼문

(나)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 울며 좁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 계량

(다)
 산수 간(山水間) 바희 아래 뒹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늠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 곳 물궂의 슬궂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제2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닳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뎛더랴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랴
 <제4수>
 - 윤선도, 「만흥(漫興)」

(라)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
 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쫓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 작자 미상

광남고등학교 (서울)

1.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수>의 '뒹집'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이다.
- ② <2수>는 '물궂'는 속세의 삶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2수>의 '그 나쁜 녀나쁜 일'은 <1수>의 '산수'보다 <4수>의 '삼공'과 '만승'을 우위에 두는 삶을 의미한다.
- ④ <4수>의 '임천한흥'은 <1수>의 '어리고 하암의 뜻'이 실현된 결과이다.

- ⑤ <1수>, <2수>, <4수>에서의 자연은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공간이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 '이제'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 :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표상한다.
- ③ ㉢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의 표현으로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 ④ ㉣ : 화자와 교감을 나누는 대상으로 삶의 고뇌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존재이다.
- ⑤ ㉤ : 반복과 열거, 대구와 점층법을 활용하여 서민들의 발랄한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가)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표를 완성하고자 할 때, (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에 간단히 밝히고, '수양산(首陽山)'과 '채미(採薇)'에 담긴 중의적 의미를 ㉡, ㉢에 간단히 써 넣시오.

| | | |
|-------|----------------------|---|
| | 백이숙제의 고사 | ㉠ |
| '수양산' |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 산 | ㉡ |
| '채미' | 고사리를 캐어 먹음 | ㉢ |

추례여자고등학교 (부산)

4.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중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나) :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다) : 설의법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라) : 간결하고 정제된 형식 속에 해학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5. (다)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홀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허라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문내 도하호노라
- ②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드냐
이시랴 허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호노라
- ③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호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쏘이런가 호노라
- ④ 이런들 엇더허며 저런들 엇더하료
만수산(萬壽山) 드령츄이 열거진들 엇더허리
우리도 이긋치 열거져 백 년(百年)썻지 누리리라
- ⑤ 오늘도 다 새겨나,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눈 다 미여든 네 눈 점 미여 주마
올 길헤 뽕 따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6. <보기>는 조선 시대의 고시조를 계승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다. 형식면에서 고시조의 어떤 점을 계승하였는지 서술하시오. (2가지 요소를 찾아 서술할 것.)

<보기>

손톱으로 툇 튀기면
뽕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리우고 있건만.

- 이희승, '벽공(碧空)'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7.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ㄴ. 불가능하고 엉뚱한 상황을 설정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ㄷ.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일상적 사물들을 열거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ㅁ. 시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여 시적 화자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8. (다)의 시적 화자가 <보기>의 시적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려 보지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는 적네
창밖에는 삼경이 다 되도록 비가 내리는데
등불 앞의 내 마음은 만 리 밖에 가 있네

- 최치원, 「추야우중(秋夜雨中)」

- ① 어지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에 힘쓰십시오.
- ②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원망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 ③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십시오.
- ④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가꾸십시오.
- ⑤ 입신양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3-(3) 춘향전

1.② 2.① 3.① 4.① 5.(1)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 (2) 표현방법: 직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성춘향의 아름다운 용모 6.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로, 사랑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살펴볼 수 있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지조와 절개를 2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다. 7.① 8.⑤ 9.② 10.① 11.② 13.① 11.② 13.⑤ 14.⑤ 15.② 16.① 17.춘향전은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보편성을 갖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후기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4-(1) 주몽 신화

1.③ 2.④ 3.(1) 영웅의 일대기 구조 (2)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게 여겨 내다 버리는데 '새와 짐승'이 오히려 지켜주자 다시 유화에게 돌려준다. 4.① 5.③ 6.⑤ 7.③ 8.④ 9.③ 10.④ 11.(1)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극복한다. (2) 석가세존 12.② 13.㉠ 성장 후 시련 ㉡ 유화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난다. 여기서 햇빛을 받아 잉태를 한다는 것은 선조들의 태양 숭배 사상을 볼 수 있다. ㉢ '주몽'이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고구려를 건국하여 성을 '고'로 삼는다. 14.③ 15.③

4-(1) 제망매가

1.② 2.④ 3.도라지꽃, 돌무덤 4.④ 5.⑤ 6.③ 7.① 8.④ 9.② 10.(1) (가): 향가, (나),(다): 고려가요 (2) ㉠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지만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등불, 만춘 들릿꽃. 임의 인품과 용모를 찬양하는 예찬적 태도를 보인다. 11.③ 12.① 13.③ 14.2월령의 '노피 현 등불'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임을 비유하고 있다. 3월령의 '들릿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6월령의 '별해 부른 빛'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15.② 16.① 17.② 18.(1) (가) 갈래는 시상이 3단으로 전개되며, 결구의 첫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된다. (2) (다)와

같은 갈래는 3장 구성이며, 종장을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와 같은 갈래가 (다)와 같은 갈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1) 위 증줄가 대평성디 (2)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 음악으로 유입될 때 절차를 갖추기 위해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첨가되었을 것이다. 20.④ 21.③④ 22.② 23.[A]는 누이의 죽음에서 두려움과 애처로움을 느끼고, [B]는 누이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가 나타난다.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24.③ 25.① 26.⑤

4-(1) 동동

1.⑤ 2.④ 3.② 4.① 5.㉠은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다. 화자를 비유하는 소재는 '별해 부른 빛', '저미연 부릇'이 있다. 6.⑤ 7.① 8.④ 9.㉡ 바치러 ㉢ 사르고 있네 ㉣ 놓으니 10.분연체 형식을 취한다, 각 연에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다. 11.(1) 2월: 연등회 (2) 6월: 유두일 (3) 9월: 중앙절 12.① 13.③ 14.2월령의 '노피 현 등불'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임을 비유하고 있다. 3월령의 '들릿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6월령의 '별해 부른 빛'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15.③ 16.(1) 1연 (2) 이 작품의 2~13연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으나, 1연은 임금에게 복을 바치러 오라는 송축의 내용이어서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이다. 17.② 18.④ 19.부른 빛, 저미연 부릇, 누술 반 잇 저 20.③ 21.③ 22.② 23.⑤ 24.② 25.④ 26.⑤ 27. 몇 개의 연으로 나뉜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연에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다. 28.④ 29.③ 30.① 31.작가는 임의 모습을 '만춘 들릿꽃'에 빗대었고 임의 인품을 '노피 현 등(燈)불'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임을 예찬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2.④ 33.② 34.⑤ 35.② 36.③ 37.④ 38.(1) 임을 빗댄 사물은 등불, 진달래꽃이며 화자를 빗댄 사물은 빛, 나뭇가지이다. (2) 1연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다른 연과 달리 임에게 복을 바치러 오라는 송축의 내용이어서 이질적이다. 이를 통해 구비 전승되다가 궁중에 유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9.③ 40.1연,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다른 연들과 달리 임에게 복을 바치러 오는 송축의 내용이다. 이러한 부분은 (다)가 민간에서 전승되다가 궁중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1.⑤

4-(2) 이생규장전

1.④ 2.① 3.㉠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⑥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4.①
 5.② 6.④ 7.⑤ 8.④ 9.② 10.⑤ 11.⑤ 12.④ 13.(1) 두
 문불출 (2) ㉠의 이 서생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부귀공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14.⑤ 15.①
 16.④ 17.② 18.② 19.이 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
 으로 보여준다.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한다. 20.② 21.② 22.① 23.⑤ 24.① 25.⑤ 26.④
 27.② 28.⑤ 29.⑤ 30.① 31.③ 32.② 33.⑤ 34.① 35.
 ③ 36.④

4-(2) 시조 네 편

1.⑤ 2.③ 3.㉠ 세조의 단종 왕위 찬탈 사건 ⑥ 수양
 대군(세조) ⑦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을 받음 4.
 ⑤ 5.① 6.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다, 3,4(4.4)조의
 4음보가 나타난다. 7.① 8.⑤ 9.② 10.⑤ 11.시조는 작
 자층이 확대되면서 내용이 다양해지고 형식의 변화
 가 나타났다.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던 초기에는 정형
 성이 두드러지는 평시조가 주로 창작되었고, 내용은
 충, 효, 절개, 강호한정 등의 유교적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후기로 가면서 작자층이 평민,
 여성, 기녀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시조가 길어지는 장
 형화가 나타났으며, 내용도 사랑, 삶의 애환, 사회 비
 판, 해학 등의 다양하고 진솔한 감정들을 노래하였
 다. 12.① 13.① 14.③ 15.㉠ '그 나쁜 녀를 일'이다.
 ④ '임천한흥'이다. 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
 과 친화하며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16.⑤ 17.④
 18.③ 19.① 20.④ 21.② 22.③ 23.① 24.② 25.① 26.
 ③ 27.② 28.④ 29.① 30.③ 31.④ 32.④ 33.④ 34.⑤
 35.② 36.① 37.⑤ 38.④ 39.② 40.④ 41.표현 기법은
 '중의법'이며 '채미'의 뜻은 '고사리를 캐 먹음'과 '수
 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을 받음'이다. 42.③ 43.① 44.
 ④ 45.① 46.⑤

4-(2) 속미인곡

1.③ 2.④ 3.③ 4.④ 5.⑤ 6.② 7.③ 8.④ 9. (1)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로 임의 옷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임에
 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 (2) 소극적인 낙월에 비
 해 적극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의미이
 다. 10.④ 11.④ 12.② 13.③ 14.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며,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다. 15.갑녀의 질문에 응
 하면서 하소연을 통해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
 하며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실제적 중심 역할을
 하는 화자이다. 16.⑤ 17.⑤ 18.① 19.③ 20.⑤ 21.(1)
 ㉠과 ㉡은 죽어서라도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
 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은 소극적 애정관을, ㉡
 은 적극적 애정관을 드러낸다. (2) ㉡은 임의 곁에
 오랜 시간, 더 가까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22.(1)
 (다)의 '두건'과 '구름'은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
 이 형상화 된 점에서 ㉠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2)
 [A] 관직을 잃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연군지정
 의 마음을 드러내는 충신연주지사 [B] <보기>의 화
 자는 독백체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다)의 화자
 는 대화체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3.⑤ 24.
 ④ 25.④ 26.㉠ 작가가 임금에게 버림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지은 작품이라, ㉠<속미인곡>은 이별을 자신
 의 탓으로 여기지만, <이소>는 임의 잘못을 지적하
 고 있다. 27.한자어 표현과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순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28.(1) (ㄱ)
 모침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ㄴ)출하리 식여디
 여 낙월이나 되야이서 (2) 임과 떨어져 '모침 촌 자
 리'에서 외롭게 지내는 화자는 죽어서 '낙월'이 되어
 멀리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
 낸 29.④ 30.① 31.④ 32.(1) ㉠'빈 비' ㉡사공이 없는
 '빈 비'는 임에게 갈 수 없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
 운 마음을 드러내어 (2) ㉠자연물을 통해서 죽어서라
 도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했다. ㉡'낙월'은
 멀리서 임을 비추므로 화자의 소극적 태도가 나타남
 다. '구촌비'는 임 가까이에서 내리며 화자의 슬픈 마
 음을 임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범나비'는 임이 자신인 줄을 모르더라도
 화자가 임을 좇겠다고 하므로 소극적 태도가 나타남
 다. 33.③ 34.③ 35.⑤ 36.③ 37.⑤ 38.② 39.④ 40.④
 41.② 42.③ 43.① 44.(가)는 '차라리 죽서 지는 달이
 나 되어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이다. 45.④ 46.② 47.② 48.③ 49.⑤ 50.④ 51.⑤ 52.
 (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
 하지만, (라)의 화자는 임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라
 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53.③ 54.④ 55.①

4-(2) 임경업전

1.② 2.② 3.⑤ 4.① 5.③ 6.⑤ 7.'임경업전'과 같은 군

▶추향이는 적극적인 인물임.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자연 ↔ 속세
 간접적 ↔ 직접적 / 주체적 ↔ 순종적 / 현상 ↔ 본질
 외면 ↔ 내면 / 이면적 ↔ 표면적 / 적극적 ↔ 소극적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직유법 vs 은유법 (★★★)

ㄱ. 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
 ㄴ. 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2.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공 심은데 콩나고, 팔 심은데 팔난다)

11. ㉔

▶㉔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㉔의 가장 관련됨.

◆주제 저장소◆

- ① <내 일 망녕된 줄~>: 연군, 우국지정과 사친(思親)
- ② <서방님 병들여 두고~>: 남편을 위하는 아내의 마음
- ③ <마음이 어린 후니~>: 임을 기다리는 마음
- ④ <어버이 사라신 제~>: 유교 윤리의 실천 권장
- ⑤ <청초 우거진 골에~>: 황진이이 죽음을 애도(哀悼)함

▶왔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 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3. ㉔

▶서술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로 변함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소설의 시점 (★★★)

ㄱ. 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작품 안에 존재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ㄴ. 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작품 밖에 존재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서술의 범위가 넓어서 많은 것(성격, 심리)을 서술할수록 독자는 그대로 수용 ↑, 상상력 제한 ↑

*서술자 내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 외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14. ㉔

▶㉔ - 무릎아래는 뜻임.

16. ㉔

▶당대의 시대상(충성심을 강조)을 드러내는 부분이 존재한다.

4-(1) 주몽 신화

1. ㉔

ㄷ. 악인의 몰락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는 건 아님.
 ㄹ. 순행적인 구성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신성성 vs 전기적

ㄱ. 신성성: 인간의 능력, 범위를 초월한 신적인 특성
 ㄴ. 전기적: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특성

<신성성>이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전기적> 특성이 <신성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2. ㉔

▶주몽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주몽'이 지닌 비범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4. ㉔

▶㉔을 제외한 나머지는 뒷글에만 해당.

5. ㉔

▶뒷글과 같은 신화의 특성을 갖는 건 ㉔뿐임.
 ① 소설에 해당 ② ⑤ 전설에 해당 ④ 민담에 해당

6. ㉔

▶㉔ : 조몽과 함께한 이들은 건국에 도움을 주는 이들로, 할아버지-아버지-자식으로 이어지는 삼대기(三代記) 구조가 아님.

7. ㉔

▶민담의 특징임.

9. ㉔

▶자유연애와 상관없음.

10. ㉔

▶<보기>엔 시련이 없음.

12.②

▶<보기>엔 시련과 고난이 없음.

14.③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2.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16.④

▶허구적 사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함.

17.①

▶'유화'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주몽'이 그 알에서 태어난 것은 비정상적 출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4-(1) 제망매가

1.②

▶(가)와 (다)는 감탄사(아야)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① (가)에만 해당 ④ 모두 화자는 숨어 있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방어적 등

2.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2.①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노래하는 <보기>의 화자에게 ①이 해줄 말로 가장 적절함.

4.④

▶'눈 돌칠 사이에'는 '눈깜짝할 사이에'로 재회를 기대하는 것과 관련됨.

5.⑤

▶기파랑을 예찬하는 것이지, 슬픔 극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갯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6.③

▶◎ : 삶의 무상감을 나타냄.

7.①

▶(가)는 (나), (다)와 달리 낙구의 감탄사인 '아야'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시상의 확산: 시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대상이 넓어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나에서 우리로 확산
- *시상의 전환: 화자의 태도나 감정이 바뀜 (그리움→증오심)
- *감정의 심화: 감정이 확대됨 (그리움→사랑)

▶넣어둬, 패턴 공략◀

선지에 <감각>이란 말이 나오면 시각(보이는 것), 청각(소리), 촉각(피부의 느낌), 후각(냄새), 미각(맛)과 관련지어라!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8.④

▶㉔ 입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건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3음보 vs 4음보

ㄱ. 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 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9.②

▶ [A] : 죽은 누이에게 화자가 하직인사를 못해서 속상해하는 상황은 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작품 속에 반영된 종교(철학) 관련 어휘 맥락

유교적: 충성, 효도, 학문, 수양, 임금, 우정...

불교적: 환생, 인연, 이별, 자비, 선행...

도교적: 자연친화, 신선사상, 옥황상제, 초현실적...

11.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건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2. 시의 전개 방식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 대립적 전개

ㄴ.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ㄷ. 선경후정: 경치+정서

ㄸ.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3.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12.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건 아님.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보통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면 화려하고 행복한 과거와 초라하고 불행한 현재의 모습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많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여성적 어조(★):

작가의 정서적 태도나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간절한 바람이나 한, 애상감 따위의 분위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조

13.③

▶㉔과 사월령에는 원망의 정서가 있음.

15.②

*민주: (나)~(다)는 모두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전달하고 있어.

*보염: (나)는 모두 계절이 바뀔 때 따라 화자가 처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예나: (가)에서는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남.

▶넣어둬, 패턴 공략◀

계절감 (★)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응, 헛갈리지 마!◀

사물 vs 자연물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자조 vs 체념 vs 한탄 (★)

*자조: 자기를 비웃음.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